대한한의학회지 제25권 제1호(2004년 3월)
J Korean Oriental Med 2004;25(1):85-95

원 저

張錫純의 肝에 대한 闡發과 臨床應用

김진옥, 김용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he Jang suk-sun's explanation and clinical application about liver

Jin-Ok Kim, Yong-Jin Kim

Dept. of Koraen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ae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theory of liver by Jang suk-sun[張錫純] is that first, although liver exists at right side of body and spleen at left anatomically, function of liver presents at left side of body and function of spleen at right based on principle of 'interdependence between eum and yang' and 'join strength with elasticity', and in the relation between liver and spleen, if gi of spleen ascends , gi of liver also ascends , and if gi of stomach descents, gi of gall bladder also descents. So. care of spleen and stomach becomes main point in treating disease of liver.

The meaning of 'the liver being in charge of the evaporation'[肝主氣化] is that first, it raises the primordial gi and forms the 'great g' for it's circulation of whole body. Second, it excretes the functional activity of gi and connects heart with kidney and guides the evaporation of the whole body by connecting innate nature with acquired nature. Third, 'the liver being in charge of the evaporation' is realized by the help of spleen and stomach. And he said that this functional activity of gi is one of distinctive features that distinguish Oriental medicine from Western medicine. He discoursed upon physiology of 'the liver being in charge of the evaporation' and 'the Body belonged to yin and the Use belonged to yang' after seeing an evil of abusing drugs that calm the liver and check hyperfunction of liver by contemporary doctors. And he established a treat of 'warming and recuperating the gi of liver'[溫補肝氣法] and used it for symptoms of 'deficiency of liver-gi'[肝氣虛], 'exhaution of liver-gi'[肝氣脫], and 'the liver-cold'[肝寒證].

Key Words: Jang suk-sun, evaporation, deficiency of liver-gi, exhaution of liver-gi, the liver-cold.

서 론

肝은 陰中之少陽으로 五行에서 木에 속하며 春에 應한다. 肝은 將軍之官으로 陽氣를 升發시키고 條達을 喜하며 抑鬱을 惡하고 敷和를 主하며 怒를 主하고 體陰而用陽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陰이란 肝이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여 陰中에 자리하며 陰血을 藏하고 있고 실질 자체가 점차 硬化 되어 가는 특징을 말한 것이며 用陽은 陰中之少陽이 되어 少陽春升之氣를 升發하는 작용으로 主疏泄, 性喜條達, 內寄相火, 主升主動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또 肝의 主要한 기능으로는 藏血 藏魂하고 主疏泄하는 기능이 있다.

肝은 藏血하는 기능 때문에 血海라고도 하는데 잠

· 접수 : 2003년 8월 25일 · 논문심사 : 2003년 9월 5일
· 채택 : 2003년 10월 25일

· 교신저자 : 김진옥. (300-716)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Tel. 042-280-2626, E-mail: king@dju.ac.kr)

을 자거나 휴식할 때는 血이 肝에 머무르다가(人臥血歸於肝) 각 부분의 생리적 특성을 발휘하게 되면 그 곳에 輸布되니 이를 『素問 · 五藏生成』에서는 "目受血而能視하고 足受血而能步하고 掌受血而能握하고 指受血而能攝이라" 하였다.

또 肝은 主目, 主筋, 主爪甲하며 병리에서는 氣機鬱結 또는 上逆, 橫逆 들이 많으며, 쉽게 生風動火하는 특징이 있다. 고금의 의가들은 이에 대하여 많은 논술을 하였으나 肝主氣化, 肝病의 氣機逆亂을 제외하고 肝氣虛, 肝主脫, 肝寒 등에 대한 논술은 극히 적었다. 張錫純은 당시의 의사들이 平肝, 伐肝藥物을 남용하는 폐단을 보고 肝主氣化, 體陰用陽의 생리에 대하여 전면적인 논술을 하여 "肝에 補法은 없다는 말은 道를 보고 한 말이 아니다."이라고 하였으며 또 溫補肝氣法을 창조하여 肝氣虛, 肝氣脫, 肝寒證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장석순은 오장 중에서도 특히 肝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하여 생리, 병리 등의 이론과 임상 및 약물치료에 대하여 탁월한 경지를 개척하였고, 장부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천발하였는데 첫 번째로 그가 肝의 생리적인 특징에 대한 발휘와 이를 임상에 응용하여 환자를 치료한 내용을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肝左脾右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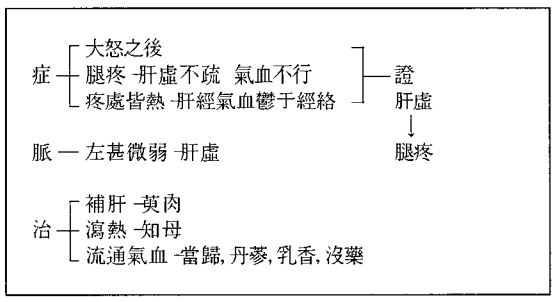
해부학적으로 肝은 右側에 있고 脾는 좌측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左肝右肺라 하여 肝의 기능은 좌측에서 발현하고 肺의 기능은 右側에서 발현한다고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장석순은 肝의 脈을 左關部에서 관찰하고 脾의 脈을 右關部에서 관찰하는데 근거하고 그의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左肝右脾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醫學衷中參西錄의 前三期合編 第四卷에 있는 曲直湯(萸肉1兩, 知母6錢, 生明乳香3錢, 生明沒藥3錢, 當歸3錢, 丹蔘3錢)條에 처음 나타난다. 그는 肝虛腿疼에 대한 치험예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30여 세의 어떤 사람을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크게 화를 낸 후에 다리에 통증이 점차 느껴졌고 날로 심해져서 2개월 후에는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의사들이 화를 내서 그 병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두가 舒肝理氣시키는 약을 사용하였으나 병은 도리어 심해지기만 하였다. 나중에 내가 진찰해 보니 脈이 미약하였고 통증이 심한 곳에서 열감이 느껴진다고 호소하였다. 갑자기 『內經』에서 '지나치게 화를 내면 肝을 상한다' 라고 한 것이 생각이 났는데 '傷肝' 이라는 것은 肝經의 氣血이 상하였다는 것이지 반드시 肝經의 기혈이 울체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기혈이 상하면 허약해지므로 脈象도 이와 같다.

다리가 아프면서 열감을 느끼게 되는 까닭은 肝은 疏泄을 主하고 그 안에 相火를 간직하고 있는데(相火는 命門에서 생겨나 肝膽에 깃든다) 肝이 虛하여 소설할 수 없게 되면 相火가 온몸을 돌지 못하고 경락사이에 기혈과 함께 옹체되니 열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열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 역시 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처방을 만들어 萸肉으로 肝을 補하고 知母로 열을 풀어 주며 다시 氣血을 소통시키는 當歸과 乳香 등의 약으로 보좌하여 10劑를 계속해서 복용시켰더니 열이 내리면서 통증이 그쳐 정상대로 걷게 되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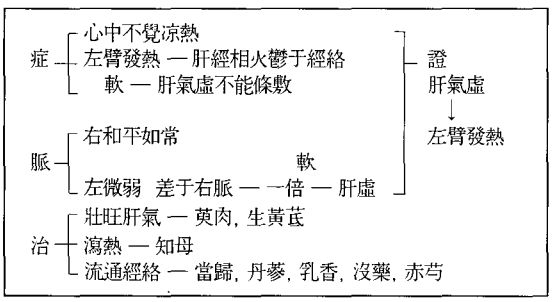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



이는 장석순이 다리의 동통을 左側의 맥이 甚微弱한 것에 착안하여 肝虛不能疏泄로 진단하여 치료한 특이한 내용이다.

또 장석순은 50여 세 된 安東에 사는 친구 劉仲友가 왼팔에서 항상 열이나고 痠軟한 듯한 느낌이 있

는 것을 치료한 적이 있었다. 일반 의사들은 熱 때문에 凉劑를 투여했지만 발열이 그대로였고 도리어 脾胃의 소화력만 감소되었다. 뒤에 그가 맥진을 해보니 左脈이 미약한 것이 右脈보다 한배가 약했다. 그가 환자에게 心中의 상태를 물어보니 凉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자 그는 이 병은 肝木之氣가 허약하여 條達, 舒暢, 敷榮하지 못해 그 가운데 있는 相火가 왼쪽 팔의 경락에 울체되어 발열함을 알았다. 그는 曲直湯에다가 生黃芪8錢을 加하고 萸肉을 도와 肝氣를 壯旺하게 하고 赤芍藥3錢을 가하여 當歸, 丹蔘의 諸藥을 도와 經絡을 소통케 하여 두 첩을 복용하니 左脈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고 몇 첩을 복용하자 완전히 나았다[1]. 이는 그가 左臂發熱과 左脈弱으로 肝의 氣化가 左側에 나타난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肝虛로 진단하고 이에 의거해 약을 써서 완치한 醫案이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



이 두 가지 醫案을 이어서 그는 肝左脾右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문답의 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혹자가 묻기를 '서양인들은 脾는 왼쪽에, 肝은 오른쪽에 있다고 하였는데 요즈음의 해부학자들이 정밀히 고찰해보니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대는 옛 설에 집착하여 肝이 左를 主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째서인가?' 대답하기를 '脾左肝右이라는 설은 서양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淮南子』에서 이미 언급되었고 옛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脾가 왼쪽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그 氣化는 실제로 오른쪽에서 먼저 이루어지므로 脾脈은 右關部에서 진찰된다. 肝이 비록 오른쪽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그 氣化는 실제로 왼쪽에서 먼저 이루어지므로 肝脈은 左關部에서 진찰된다. 이것이 『陰陽互根 剛柔錯綜』의 오묘한 이치이다.' "[1]라 하여 肝의 위치가 右에 있는 것이 서양사람이 처음 말한 것도 아니며 肝이 右側에 있으나 "其氣化는 實先行於左"라 하여 體用이 相反함을 밝히고 있다.

그는 또 第五期 深研肝左脾右之理에서도 거듭 "肝之體는 居于右로대 而其氣化之用은 實先行于左 故로 肝脈은 見于左關하고 脾之體는 居于左로대 而其氣化之用은 實先行于右 故로 脾脈은 見于右關하니 從其體臨證疏方則無效어니와 從其用臨證疏方則有效니 是以從用不從體也라"[3]하여 用을 따라 치료에 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肝은 開竅于目하는데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밝으니 이것이 肝의 氣化가 先行于左하는 명확한 증거"라 하였고 "脾主四肢하는데 오른쪽 팔다리 힘이 왼쪽보다 강하니 이것이 脾의 氣化가 先行于右하는 명확한 증거"[3]라 하였다.

또 그는 衷中參西하여 서양의학의 이론을 끌어 이를 설명하기를 "서양사람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뇌신경이다. 그러나 몸 좌측의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은 오른쪽 뇌에서 나오고 몸 우측의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은 왼쪽 뇌에서 나온다. …… 이것은 진실로 造化生成之妙이다"[3]라 하였다.

그는 이를 임상에 직접 활용하여 怒氣가 傷肝經하여 肝經이 虛弱하게 되어 앉을 때 左半身이 항상 아래로 빠지는 것(下墜) 같고 누울 때 左側으로 눕지도 못하는 환자를 진찰해 보니 左關脈이 微弱異常하자 生箭芪8錢으로 강력하게 肝氣를 升補하고 當歸 萸肉 各數錢으로 佐하여 복용시키자 한 첩에 효과가 있었고 몇 첩에 완전히 치료된[3] 치험예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左肝右脾說의 핵심을 다시 요약해 보면 위치와 작용은 左右가 반대로 나타나 肝雖居右나 其氣化는 實先行于左하고 脾雖居左나 其氣化는 實先行于右한다는 四語로 압축될 수 있다.

肝과 脾의 관련성을 밝힘

黃元御는 일찍이 陰陽이 처음 자리 잡을 때 祖氣가 있는데 祖氣는 人身의 太極이 된다고 하였다. 祖氣의 안에는 陰陽을 包含하고 있고 陰陽之間을 中氣라 하니 中은 土로 戊己로 나누어지니 戊土는 胃가 되고 己土는 脾가 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己土上行하면 陰升而化陽이니 陽升於左 則爲肝이며 升於上 則爲心이오 戊土下行하면 陽降而化陰이니 陰降於右 則爲肺며 降於下 則爲腎이니 肝屬木而心屬火하고 肺屬金而腎屬水이니 是人之五行也니라"[4]라 하였다. 장석순은 황원어의 이 說을 임상에 적극 활용하였다.

또 그는 "土가 升降의 직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木이 형벌을 가하기 때문이다. 木은 水에서 생겨나 土에서 자라니 土氣가 조화를 이루면 肝은 脾를 좇아 올라가고 膽은 胃를 따라 내려가니 木이 번영하여 울체되지 않는다. 土가 弱해서 木을 達하게 하지 못하면 木氣가 鬱塞해서 肝은 下陷하는 병이 생기고 膽은 上逆하게 되는 병이 생긴다."[4]고 하였다.

장석순은 위의 이론에 입각하여 肝鬱脾弱하야 胸脇脹滿하고 不能飮食하는 사람을 위해 升降湯(野台蔘2錢, 生黃芪2錢, 白朮2錢, 廣陳皮2錢, 川厚朴2錢, 生鷄內金2錢, 知母3錢, 生杭芍3錢, 桂枝尖1錢, 川芎1錢, 生薑2錢)을 立方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內經』에서 '厥陰(肝經)不治, 求之陽明(胃經)' 이라고 하였고 『金匱』에서는 '肝病을 보면 먼저 脾를 實하게 하라' 고 하였으니 先聖과 後聖께서 말씀하신 바가 한결같다. 그러므로 이 처방에서는 약간의 桂枝와 川芎으로 肝氣를 풀어주고 나머지 약들은 脾胃를 升降시키면서 中土를 배양시켜 中宮의 氣化를 두텁게 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럼으로써 肝氣가 저절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內經』의 '求之陽明' 과 『金匱』의 '當先實脾' 의 오묘한 뜻을 따른 것이다. '見肝之病, 當先實脾' 라는 두 구절을 지금까지는 肝病이 脾로 전해지므로 이를 실하게 하여 병의 傳變을 막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 방법이 진실로 옳지만 실제로는 脾를 實하게 하는 것이 곧 肝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뜻을 겸해야 비로소 이 두 구절의 妙함을 다할 수 있다."[5]

"사람의 臟腑에서 脾胃는 土에 속하는데 원래는 金木水火의 모든 臟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肝氣는 상승해야 하는데 脾土의 氣가 상행하지 못하면 肝氣도 상승하지 못한다. 그리고 膽火는 하강해야 하는데 胃土의 氣가 하행하지 못하면 膽火도 하강하지 못한다. 그래서 『內經』에서 厥陰治法을 논하면서 '그 中氣를 조화롭게 하여 이것으로 하여금 和平하게 한다.(調其中氣 使之和平)' 라고 말하였다. 이른바 '中氣' 라는 것은 '脾胃' 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使之和平' 이라는 것은 '厥陰肝經' 을 말한 것이다. 厥陰의 치법이 이와 같으니 少陽의 치법도 역시 이와 같다. 仲景에 이르러서도 『內經』이 계속해서 받들어져 傷寒論이라는 책이 저술되었다. 그 중에 少陽의 寒熱往來를 치료하는 小柴胡湯에서는 人蔘, 甘草, 大棗, 半夏로 脾胃를 調理하였으니 이른바 '調其中氣, 使之和平' 이라는 것이다. 또 厥陰의 乾嘔와 吐涎沫을 치료하는 吳茱萸湯에서도 人蔘과 大棗로 脾胃를 調理하였으니 또한 '調其中氣, 使之和平' 이라는 것이다. 小柴胡湯에서는 柴胡를 君藥을 삼았는데 비록 少陽의 약이지만 『本經』에는 이것이 腸胃속에 쌓인 氣, 음식이 쌓인 것, 寒熱을 일으키는 邪氣를 없애어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을 들어오도록 한다고 하였다. 『本經』의 글을 세밀히 살펴보면 柴胡는 실제로 陽明의 약인데 少陽을 겸하여 치료한다. 『本經』과 『內經』 및 『傷寒』과 『金匱』등의 여러 서적을 살펴보면 내가 만든 升降湯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게 될 것이다."[5]라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장석순이 內經, 本草經, 傷寒論, 金匱要略 등의 古醫書를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했으며 이를 임상에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새삼 엿볼 수 있다.

또 그는 肝氣不舒하야 木鬱克土하야 脾胃之氣가 升降하지 못해 胸中滿悶하고 항상 短氣하는 사람을 위해 培脾舒肝湯(于朮3錢, 生黃芪3錢, 陳皮2錢, 川厚朴2錢, 桂枝尖1.5錢, 柴胡1.5錢, 生麥冬2錢, 生杭芍4錢, 生薑2錢)을 立方하였는데 脾胃之氣를 승강시켜 肝氣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立方의 의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脾는 淸氣를 상승시키므로 津液을 위로 이르게

하고, 胃는 濁氣를 하강시키므로 糟粕을 하행시킨다. 白朮과 黃芪 야말로 脾胃를 補하는 약이다. 桂枝는 柴胡와 함께 脾氣의 상승을 돕고, 陳皮는 厚朴과 함께 胃氣의 하강을 돕는다. 淸升降濁하여 그득하면서 답답한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니 굳이 肝氣를 순조롭게 하지 않아도 肝氣가 저절로 순조롭게 된다. 이에 桂枝, 柴胡와 麥芽는 모두 肝氣를 펼쳐주는 神妙한 약이 아니겠는가? 芍藥을 사용한 것은 肝氣의 상승으로 膽火도 이를 따라 상승될까 염려되어서이고, 또한 黃芪와 桂枝의 熱을 풀어 주기 위해서이다. 生薑을 사용한 것은 그의 辛溫한 성질로 發散·疏通하여 끊임없이 肝脾의 氣化를 융화시킬 수 있음을 취한 것이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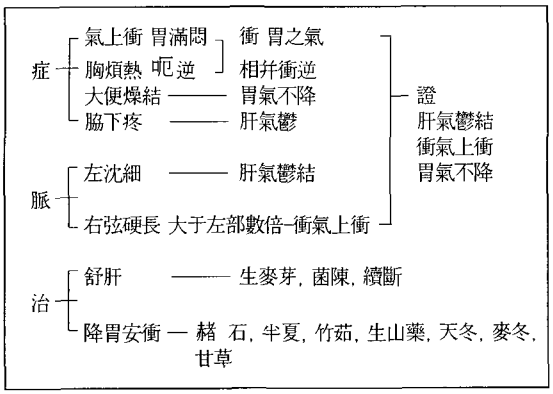
그는 또 答劉希文問肝與脾之關系及肝病善作疼之理를 지어 兩臟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肝과 脾는 서로 도와서 作用하는 臟이다. 사람들이 흔히 肝木이 지나치게 성하면 脾土를 克傷하여 소화를 안되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肝木이 지나치게 약하더라도 脾土를 소통시키지 못해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肝之系는 氣海에 연결되어 있고 아울러 相火가 그 속에서 寄生하고 있다. 이처럼 肝은 氣海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元氣를 대신 布化할 수 있으니 脾胃가 건실하게 작용하는 것은 실상 肝의 도움에 의지하고 있다 또 相火가 肝에 寄生하고 있기 때문에 火生土하여 脾胃의 飮食이 다시 肝의 협조를 얻어 腐熟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肝과 脾는 서로 도와서 作用하는 臟이라 한다. 肝은 장군지관으로 其性이 剛果하고 其氣가 條達하는데 때로 調攝을 잘못해서 條達之性을 거스리면 그 剛果之性을 激發시켜 방자하게 되면 脾胃가 먼저 상충함을 받아 이전에 돕던 것이 도리어 손상을 끼치게 된다. 그 橫恣함이 이르게 되면 모든 臟腑之氣를 밀어내 조화를 잃게되어 疼痛이 자주 발생한다."[3]

그는 이러한 肝脾의 관계를 고려하여 肝脾不和하야 飮食不消하며 滿悶脹疼하며 或呃逆, 噯氣, 嘔吐하며 或泄瀉하며 或痢疾하며 或女子月事不調 行經腹疼하는 肝脾의 諸證을 위해 肝脾雙理丸을 만들었는데 복용하여 큰 효험을 보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또 장석순은 지나치게 사는데 신경을 써서 腹中有氣가 自下上衝하야 胃脘滿悶 胸中煩熱, 脇下脹疼, 時常呃逆, 間作嘔吐, 大便燥結, 其脈左部沈細, 右部則弦硬而長, 大于左部數倍하는 환자를 生赭石一兩, 生懷山藥一兩, 天冬一兩, 寸麥冬六錢, 淸半夏四錢, 碎竹茹三錢, 生麥芽三錢, 菌陳二錢, 川續斷二錢, 生雞內金二錢, 甘草錢半의 약으로 치료하면서 진단과 方解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肝氣鬱結로서 衝氣가 上衝하여 胃氣가 하강하지 못한 것이다. 肝氣가 鬱結하였기 때문에 左脈이 沈細한 것이고, 衝氣가 上衝하였기 때문에 右脈이 弦長한 것이다. 衝脈은 위로 陽明에 속해 있으니 그 氣가 계속 上衝되면 陽明胃氣가 하강하지 못한다. 이 증의 嘔吐呃逆, 胃脘滿悶, 胸間煩熱은 모두 衝脈과 胃氣가 함께 衝逆한 명확한 증거이며 脇下脹疼은 肝氣鬱結의 명확한 증거이다. 胃氣는 원래 마땅히 쉬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음식을 전송하여 대소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胃氣가 하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이 燥結하게 된 것이다. 이를 치료하려면 舒肝, 降胃, 安衝시키는 처방을 사용해야한다. 肝은 좌를 主하여 상승하고, 胃는 우를 主하여 하강하는데, 肝氣가 상승하지 못하면 先天의 氣化가 肝으로 말미암아 아래로 전수될 수 없게 되니 이 증의 근본은 바로 마땅히 상승해야 할 것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강해야 할 것이 하강하지 못한 데 있다. 그러므로 처방 중에 生麥芽와 菌陳으로 肝氣를 상승시키고 生磁石·半夏·竹茹로써 胃氣를 하강시켜 衝脈을 안정시키며, 續斷을 사용한 것은 肝을 補하여 肝氣가 상승하는 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이다. 生山藥·天門冬·麥門冬을 사용한 것은 그것의 潤胃補胃할 수 있는 성질을 취하여 胃氣의 하강을 도울 수 있게 한 것이며 雞內金을 사용한 것은 化瘀止疼하는 효능을 취하여 다른 약물의 약력을 운행하고자 한 것이다."[6] 이를 도식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7].



肝의 疏泄기능을 치료에 활용함

疏泄이란 疏通시키고 暢達시킨다는 뜻으로 지금의 학자들은 이를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調節情志의 기능이다. 소설의 기능은 기혈의 운행에 영향을 미치고 기혈의 운행은 정신의 활동에 관여하여 정신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消化를 促進하는 기능이다. 唐容川은 『血證論』에서 "木之性主于疏泄, 食氣入胃, 全賴肝木之氣以疏泄之, 而水穀乃化; 設肝之淸陽不升, 則不能疏泄水穀, 滲泄中滿之症, 在所不免"[8]이라 하였는데 표리관계에 있는 膽에서 膽汁을 분비하고 이것이 소화를 도와주는 것과도 상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는 기혈을 소통시키고 조절하는 기능이다. 周學海는 『讀醫隨筆』에서 "凡臟腑十二經之氣化, 皆必藉肝膽之氣化以鼓舞之, 始能調暢而不病"[9]이라 하여 장부경맥의 기혈의 운행이 肝의 기화와 관련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肝의 승발과 소설기능을 밝혀주는 내용이다.

넷째, 通利水道의 기능이다. 肝의 소설기능은 氣의 승강출입운동에 대해서 소통시키고 조절하는 작용을 갖고 있다. 水液의 대사는 脾肺腎 三藏과 三焦, 膀胱 등의 기관이 공동으로 활동한 결과지만 脾의 運化와 肺의 肅降이 肝의 疏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三焦의 氣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는 肝의 정상적인 疏泄作用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다섯째, 冲任脈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기능이다. 충맥 · 임맥은 모두 胞中에서 起하여 足厥陰肝經과 交會하여 同行하고 있어 생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冲脈은 血海가 되고 임맥은 胞宮을 主하여 월경과 태아의 잉육에 관여한다. 肝은 藏血하여 여자들의 經血의 근본이 된다. 肝의 藏血기능이 정상이면 餘血이 血海로 下注하여 충맥이 盛滿하게 되고 血海가 충성하게 된다. 임맥의 通暢은 반드시 간기의 條達에 의뢰하므로 肝의 소설이 정상이면 氣機가 調暢하여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하는 것을 돕게 되니 肝主疏泄은 冲任을 조절하는 作用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10].

장석순은 천식을 치료하는 薯蕷納氣湯을 立方하고 이것은 陰虛해서 納氣하지 못해서 생기 喘逆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이를 腎失其閉藏之性하여 肝이 腎氣를 소설시켜 下行케 하지 못하여 上逆하여 생긴 병이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 처방(薯蕷納氣湯)은 陰陽이 모두 虛하여 喘證이 된 것을 치료하고 이 처방은 오로지 陰虛에 의해서만 천증이 된 것을 치료한다. 方書에서 肝腎이 虛한 경우는 氣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이 말 역시 이치에 가까우므로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 공기 중에는 산소 즉, 사물을 길러 주는 살아 있는 기운이 있다. 사람의 肺臟은 아래로는 구멍이 없으나 흡입된 산소는 실제로 肺胞를 끊임없이 투과하여 복중으로 내려가서 전신을 充養시킨다. 肝腎은 腹中에 있으면서 氣化를 발산시키나 팽창되지는 않고 下達된 氣를 받아들이며 뿌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준다. 腎虛하여 氣化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氣를 충맥으로 올려 보내는데 衝脈 아래에 腎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무릇 충맥은 血海이며 또한 氣를 主하므로 지금은 腎氣가 충맥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니 衝氣가 또한 반드시 위로 거슬러 오르게 되는데 충맥이 위로는 胃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衝氣가 胃氣를 끼고 거슬러 오르면 아울러 肺氣가 압박하여 上逆시키니 이것이 喘證이 오게 된 이유이다. 또 『內經』에서 '肝은 疏泄을 主하

고 腎은 閉藏을 主한다' 고 하였다. 무릇 肝의 疏泄기능은 원래 腎의 閉藏기능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대소변이 통하는 것과 相火가 움트는 것은 肝氣와 관련이 있으니 方書에서 '肝이 腎氣를 行한다' 는 說이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은 腎이 그 閉藏하는 성질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肝도 이어서 腎氣를 疏泄하여 하행시킬 수 없게 되고 또한 腎氣의 膨脹을 다그쳐 도리어 上逆시키게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 上逆한 氣는 肝으로부터 직접 胸膈 위를 통과하고 肺氣를 다그쳐 上逆시키니 이 또한 喘證이 오게 된 이유이다."[5]

또 장석순은 비를 흠뻑 맞은 상태에서 소변을 보다가 風寒邪의 침습을 받아 白濁證에 걸린 환자를 生箭芪5錢, 淨萸肉5錢, 生懷山藥5錢, 生龍骨5錢, 生牡蠣5錢, 生杭芍4錢, 桂枝尖3錢, 生懷地黃3錢, 甘草1.5錢의 처방을 지어 치료하였는데 肝이 腎에 행하는 疏泄作用이 지나치고 腎臟이 蟄藏하는 작용을 잃어 이러한 병이 발생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證候 : "요도에 항상 찌르는 듯한 가려움이 있었고 매번 소변을 다 보고 나선 정액 같은 것이 몇 방울 흘러 나왔다. 지금까지 석 달이 지나도록 여러 차례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으며 左脈은 弦硬하였고 右脈은 微浮했으면 깊게 누르면 무력하였다."

診斷 : "『內經』에서 '腎主蟄藏, 肝主疏泄' 이라고 하였다. 또한 '風氣通右肝' 이라고 하였고 '肝行腎之氣' 이라고 하였다. 이 증은 風寒이 肝으로 침습해서 肝이 風邪의 도움을 받아 疏泄力이 더욱 커진 것이니 소변을 볼 때 肝이 腎氣를 과도하게 疏泄시켜 腎臟이 蟄藏하는 기능을 잃어 소변이 나올 때 精도 따라서 나오게 된 것이다.

左脈이 弦硬한 것은 肝脈이 風을 끼고 있는 象이고, 右脈이 浮하면서 무력한 것은 병이 오래되서 氣血이 허약한 것이다. 요도가 항상 가려운 것은 風이 침습한 명백한 증거이다. 이는 마땅히 간풍을 흩어버리고 腎氣를 固密케 하며 氣血을 培養시키는 약물로 보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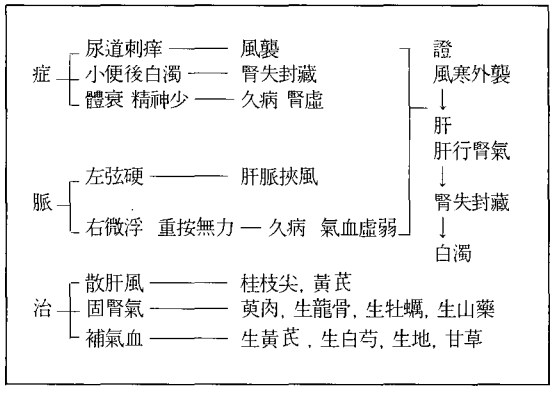
方解 : "처방 중에 黃芪가 主藥이 된 것은 『本經』에서 '黃芪가 大風을 主한다' 고 하였으니 風이 臟에 들어간 이런 경우에는 黃芪가 風을 밖으로 쫓을 수가 있고 또한 補氣를 잘 하는 성질이어서 氣가 성하면 저절로 滑脫한 병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桂枝도 또한 風을 내쫓는 要藥인데 그 성질이 平肝을 잘 하기 때문에 肝風을 더욱 잘 내몰 수 있으니 黃芪와 서로 돕게 되면 힘이 더욱 강해진다.

萸肉 · 龍骨 · 牡蠣를 사용한 것은 이들이 모두 收斂藥이면서도 正氣만을 잘 수렴시키고 邪氣는 수렴하지 않아 腎臟의 칩장하는 기능을 도와 줄 수 있고 肝風의 소산을 방해하지는 않아서이니 내가 저술한 『藥物講義』에서 상세히 논해 놓았다.

山藥을 사용한 것은 下焦의 氣化를 거둘 수 있고 萸肉과 함께 腎氣丸의 要藥이 되어 腎氣를 보호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芍藥과 地黃을 사용한 것은 黃芪와 桂枝의 熱을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芍藥은 또 平肝을 잘 하고 地黃은 또 補身을 잘 하므로 古方의 腎氣丸에서는 乾地黃이 主藥이 되고 지금은 生地黃이 主藥이 된다.

甘草를 사용한 것은 肝急을 완화시키려는 지나치게 소설되는 것을 완만하게 할 수 있다."[6] 이를 도식화하고 治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7].



肝이 氣化를 主함을 밝힘

장석순은 "사람은 天地의 氣化를 품부받아 생겨나

니 人身의 氣化는 바로 천지의 氣化이다. 만약 인신의 기화에 밝지 못하면 천지의 기화를 가지고 증명해도 무방하니 진실로 인신의 기화는 微而隱하고 천지의 기화는 大而顯하다. 천지의 기화는 伏羲氏께서 일찍이 卦를 그려서 發明하였으니 곧 先天圖의 乾南, 坤北, 離東, 坎西가 이것이다. 文王 때 이르러 衍易하여 後天으로 변했으니 八卦가 각각 그 방위를 바꾸었다. …… 따라서 伏羲氏가 그린 卦位는 體가 되고 文王이 그린 卦位는 用이 되니 體를 쓰면 효과가 없고 用을 쓰면 효과가 있다. 用이라는 것은 기화가 드러나서 作用하는 곳이다. 천지의 기화가 이러하거늘 인신의 기화가 또한 어찌 그렇지 아니하리오"[3]라 하여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화가 대단히 중요함을 밝혔고 "장부에 있어서 서양사람들은 형체만을 언급하고 기화를 말하지 않았으며 장부의 기능만을 말하고 장부의 性情을 말하지 않았으니 그 뜻은 장부는 성정이 전혀 없고 성정의 발동은 모두 뇌에서 관장한다고 하니 그 이치를 과연 다 믿을 수 있겠는가"[5]라고 하여 서양사람들의 단견을 비판하였다. 이에 반해 "『內經』에서 장부를 論한 것은 기화를 發明한 것이고 아울러 성정을 연구하는 것으로 宗旨로 삼았지만 形迹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하고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內經』에서 肝은 將軍之官으로써 謀慮가 나오고, 膽은 中正之官으로써 決斷이 나온다고 하였다. 肝은 厥陰으로 陰이 다하여 陽이 생겨나는 것이고, 膽은 肝 가운데 쌓인 陽으로 肝氣를 條達시켜 謀慮를 決斷시킨다. 그러므로 사람의 肝膽이 壯實한 경우는 틀림없이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나 肝膽이 허약한 경우는 틀림없이 겁이 많고 망설임이 많다."[5]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모두 기화의 내용을 밝혔다는 것이다.

장석순은 위에서 肝膽을 예로 들은 것처럼 인체에서 기화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臟은 肝臟이라고 하였다. 肝臟은 신체의 기화를 주장하고 先後天사이를 연결하며 氣機가 정상적으로 승강출입 운동을 하는 관건이라고 하여 氣機가 條暢하면 氣血이 生化不息하고 陰陽協助하게 된다고 하였다.

첫 번째로 肝主氣化는 元氣를 升發하는 것을 통하여 대기를 형성하여 전신에 작용한다고 하여 '사람의 元氣는 腎에서 肝으로 가고 肝에서 胸中으로 도달하는데 대기의 근본이 된다.(人之元氣自腎達肝 自肝達于胸中 爲大氣之根本)', '대개 사람의 元氣는 腎에 뿌리를 두고 肝에서 싹터서 脾를 培養하는데 胸中에 쌓여 대기가 되어 전신을 돈다.(蓋人之元氣 根基于腎 萌芽于肝 培養于脾 積貯于胸中爲大氣 以斡旋全身)'이라고 하여 肝을 '인신의 元氣가 싹트는 臟(人身元氣萌芽之臟)'이라고 하고 '氣化發生之始'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肝主氣化는 氣機를 소설하고 心腎을 통하게 하며 先後天을 연결하여 전신의 기화를 지도하는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장석순은 '肝氣는 上達할 수 있으므로 心氣의 선통을 돕고, 肝氣는 下達할 수 있으므로 腎氣의 소설을 도울 수 있다.(肝氣能上達 故能助心氣之宣通(肝系下連氣海 上連心 故能接引氣海中元氣上達于心)爲肝氣能下達 故能助腎氣之疏泄(腎主閉藏 有肝氣以疏泄之 二便始能通順))', '肝腎이 충족하면 척추에서 상달하는 督脈이 반드시 소통되는데, 督脈은 뇌수와 신경이 있는 곳이다.(肝腎充足則自脊上達之督脈必然流通 督脈者又腦髓神經之所也)'라고 하였다.

세 번째로 肝主氣化는 脾胃의 도움에 의지한다. 장석순은 '肝膽의 작용은 실제로 脾胃와 서로 돕는 것이 이치이다.(肝膽之用 實能與脾胃相助爲理)'라고 하였는데 五行으로 설명해 볼 때 木은 侮土하고 또 疏土하기도 하며 肝木이 過盛하거나 부족함을 막론하고 모두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肝氣는 升해야 하고 膽火는 내려가야 한다.(肝氣宜升 膽火宜降)', '脾氣의 상행이 아니면 肝氣는 올라가지 못하고, 胃氣의 하행이 아니면 膽火는 내려가지 못한다.' 하며 그 도리는 '五行의 土는 원래 木火金水四行을 포괄하는데, 사람의 脾胃는 土에 속하고, 그 기화의 敷布는 역시 金木水火 각 장부를 포괄할 수 있다. 그러므로 脾氣가 상승하면 肝氣가 따라서 상승할 수 있고, 胃氣가 하행하면 膽火도 따라서 하강한다.' 하기 때문에 장석순은 '實脾卽爲理肝'의 관점을 제기하였다[1].

장석순은 더 나아가 肝의 기화가 左側에서 선행한

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확실히 증명하였다.

"사람은 천지의 빼어남을 받고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체 역시 小天地이다, 인체의 기화를 밝히려면 먼저 천지의 기화를 살펴야 한다. 무릇 천지의 한 해의 기화는 봄에서 시작되고 하루의 기화는 아침에서 시작된다. 봄의 기화는 동쪽으로부터 오고 아침의 기화는 해를 따라 동쪽에서부터 상승한다. 봄은 한 해의 木令이고 아침은 하루의 木令이다, 肝臟은 木에 속하여 生發之氣를 갖추고 있으므로 한 해의 봄에 응하고 하루의 아침에 응한다. 氣化가 왼쪽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이치는 봄이 동쪽으로부터 오는 것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예에서 얻을 수 있다. 천지의 동쪽은 사람의 왼쪽에 해당한다. 다시 이 임상예를 가지고 논해보자면 左脈이 이와 같이 미약해서 肝을 補하는 약을 투여했더니 脈이 되살아났다. 어찌 肝과 인체의 좌측이 관계가 없다고 하겠는가?"[5]

이어서 그는 肝의 기화가 왼쪽에서 선행하지만 右側에 위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膈上은 天에 속하고 膈下는 地에 속한다. 地道는 오른쪽으로부터 올라가고 그 氣化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天道는 왼쪽으로 올라가고 그 기화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해가 땅 속에 있을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해가 땅 위에 있을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니 이것이 분명한 증거이다. 肝이 膈下에 있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묻혀서 아래로 水氣를 찾아 파고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地道가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것을 마땅히 따르므로 肝이 오른쪽에 위치한 것이다. 그 기화가 膈을 통과하여 絡으로 이어지는 것은 나무가 잘 자라 번성해서 산소를 상승시키는 것과 같다. 그리고 天道가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마땅히 따르므로 그의 기화가 먼저 왼쪽에서 이루어진다. 그 예를 식물 중에서 살펴보면 덩굴의 부류는 사물에 부착하여 살아가는데 반드시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감고 올라가니 역시 肝이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그 氣化는 먼저 왼쪽에서 이루어지는 이치와 같다."[5]

그의 기화에 대해 劉某라는 사람이 肝脾 中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肝의 기화가 횡격막을 뚫고 왼쪽에 이를 수 없고, 脾의 기화가 횡격막을 뚫고 오른쪽에 이를 수 없는데 기화가 行할 수 있느냐고 반박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해 "天地는 陰陽이 化合해서 생겨났고 인신은 氣血이 화합해서 생겨난 것이니 지극히 精微한 것이 上帝의 일이 無聲無臭한 것과 같다. 공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橫膈膜을 가지고 예를 든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기화가 뚫고 이르는 것은(透達) 분명히 드러난 통로가 있을 필요는 없다. 물리로 밝혀 본다면 바늘이 항아리 속에 떠 있을 때 항아리 밖에서 자석으로 땡기면 바늘이 자석을 따라 움직인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석의 기화가 항아리를 뚫고서 작용한 것이다.…… 다시 鍼灸를 가지고 밝혀보면 各經의 모든 經穴은 뚜렷이 드러난 脈絡으로 貫通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疔瘡이 경맥의 起始部에서 생기더라도 경맥의 終止部에서 치료할 수 있고, 疔瘡이 경맥의 終止部에서 생기더라도 경맥의 起始部에서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행하는 脈絡이 있어 기화가 관통한 것은 비유컨대 전기선이 있는 것이요, 순행하는 脈絡이 없는데도 기화가 또한 貫通한 것은 비유컨대 전기선이 없는 것이다. 서양사람은 天地의 기화를 살펴 라디오를 만들었지만 사람의 기화를 살펴 침구를 만들지는 못했으니 진실로 天地之氣化는 顯而明하고 인신의 기화는 隱而微하다."[3]고 자세한 설명을 加하고 있다.

肝臟魂을 임상에 활용함

『素問 · 六節藏象論』에 "肝者, …… 魂之居也"라 했고 『靈樞 · 本神』에서 "隨神往來者謂之魂", "肝藏血 血舍魂", "肝, 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狂妄不精, 不精則不正當人"이라 했으며 『靈樞 · 淫邪發夢』에서 "肝氣盛則夢怒, …… 客于肝則夢山林樹木"이라 하여 魂은 정신활동의 一部分으로 "晝則魂游于目而爲視, 夜則魂歸于肝而爲夢"한다고 알려져 왔다.

魂은 血속에서 작용하는 陽氣로 肝의 藏血하는 기능과 소설하는 기능이 정상적이면 魂이 잘 舍藏되어

神을 따라 잘 활동하지만 七情이 지나치거나 肝虛而枯하면 肝이 魂을 藏하지 못하거나 魂이 안정되게 머물지 못한다. 이를 血枯而魂散이라 한다.

장석순은 천진에서 문인들과 싯구절을 주고받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心血이 암암리에 손상되어 不眠症을 앓던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生懷山藥1兩, 大甘枸杞8錢, 生赭石6錢, 玄蔘5錢, 北沙蔘5錢, 生杭芍5錢, 山棗仁4錢, 生麥芽3錢, 生赭內金1.5錢, 菌陳1.5錢, 甘草2錢의 처방으로 2첩을 쓰자 잠을 2~3시간 자고 心中에 熱이 나지 않았으며 음식량도 약간 증가하였으나 대변이 여전히 정체되었고 脈象이 이전처럼 弦硬하지 않아 원방에 去生麥芽 加龍眼肉3錢, 生遠志1錢半하고 菌陳1錢, 甘草1.5錢으로 변경하여 치료한 치험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증후와 진단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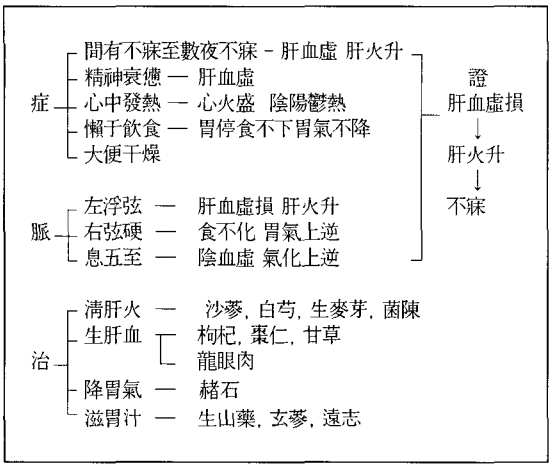
證候 : "겨울부터 간간이 불면증이 있었는데 개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 陽氣가 발동하자 병이 더욱 심해졌고 음력 3월이 되자 밤에 항상 잠을 자지 못하였는데 어떤 수면제도 효과가 없었다. 정신이 매우 쇠약해졌고 心中에 항상 발열이 있었으며 잘 먹지를 못하였고 억지로 밥을 먹으면 음식이 胃脘에 정체되어 내려가지 못하였다. 대변이 건조하여 항상 약을 복용해야 비로소 대변을 볼 수 있었다. 左脈은 浮弦하였고 右脈은 더욱 弦하면서 硬을 겸하였으며 일호흡에 5번 뛰었다."

診斷 : 左脈이 浮弦한 것은 肝血이 虛損한 것에다 肝火의 上升을 겸한 것이다. 사람이 잠을 잘 때에 魂이 肝에 저장되는데 지금은 肝臟의 血이 부족하기 때문에 火가 상승해서 魂이 저장되지 못하여 잠을 잘 수 없게 된 것이다. 右脈이 弦하면서 硬을 겸한 것은 위산이 부족한데다가 다시 胃氣가 上逆해서이다. 酸汁이 적으면 음식을 소화할 수 없고 氣가 上逆하면 끊임없이 아래로 음식을 수송할 수 없게 되니 음식을 먹은 후에 항상 胃脘에 정체되어 내려가지 않게 된 것이다. 대변이 燥結한 것 또한 胃腑의 氣化가 아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증을 치료하려면 淸肝火 · 生肝血 · 降胃氣 · 滋胃汁해야 하니 이처럼 肝胃를 調養시키면 밤에 자연히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식후에 정체도 없게 된다.

說明 : "『易 · 繫辭傳』에서 '一陰一陽은 서로의 뿌리가 된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의 기화이다. 사람은 천지의 기화를 품부받고서 태어나는데 上焦의 氣化는 陽이 되고 下焦의 기화는 陰이 된다. 낮에는 당연히 종일토록 말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陰陽의 氣가 모두 소모되므로 저녁에 편안한 호흡으로 보조해 주어야 한다. 실제 사람이 잠을 잘 때에는 上焦의 陽氣가 아래로 내려가 간직되어 下焦의 陰氣와 만나서 陰陽이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니 심신이 저절로 서로 교류한다. 이 때문에 숙면을 취할 때 相火는 항상 치성하여 암암리에 움직이니 이는 心이 腎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숙면을 취하게 되면 정신이 저절로 상쾌해지니 이는 腎이 心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곧 『易』에서 말한 一陰一陽이 서로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陽氣가 간직된다는 것이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은 陽氣가 浮越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浮越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臟腑의 기화가 상승만 하고 하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방 중에 赭石을 중용하여 降胃鎭肝시키면 대변의 乾結 치료되고, 또한 색이 붉고 무거워서 心中으로 들어가서는 心陽을 끌어내려주어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데 만약 龍骨과 牡蠣같은 수렴시키는 약물로써 보조하여 神魂을 편안히 보호해 주면 확실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지만 처방 중에 가하지 않은 것은 收攝하는 성질이 대변의 燥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內經』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해 주는 데 효과가 좋은 半夏秫米湯이 있다. 胃는 中焦에 거하는데 胃中의 기화가 만약 끊임없이 내려간다면 上焦의 氣化가 모두 이것으로 인해 내려갈 수 있게 된다. 半夏는 胃氣를 내려주고 秫米는 和胃를 잘하므로 半夏와 秫米를 함께 사용하면 胃氣를 조화시켜 하행하는 常道를 잃지 않게 되므로 사람이 눈을 감고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처방 중에 赭石과 山藥을 함께 사용하면 그 和胃降胃시키는 힘이 실제 半夏와 秫米보다 우세하니 古方의 뜻을 취하여 변통하여 만든 것으로서 비록 古方의 쓰임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古方을 사용한 것

이다."[6]

그는 위의 不眠症을 肝血虛損, 肝火上升하여 사람의 肝 속에 있어야 할 魂이 저장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古方의 내용을 변통하여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였는데 그의 古方에 대한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7].



결 론

장석순의 저서인 醫學衷中參西錄을 중심으로 肝의 생리적이 특징과 병리적인 변화 그리고 이에 다른 임상응용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해부학적으로 肝은 右에 脾는 左에 위치하지만 기화는 陰陽互根 剛柔錯綜하는 원리에 의해 肝은 左에 脾는 右에 發顯한다. 따라서 肝의 脈은 左關部에서 관찰되고 脾의 脈은 右關部에서 관찰되며 肝開竅于目함에 왼쪽 눈이 오른쪽 눈 보다 밝고 脾主四肢함에 오른쪽 팔다리가 왼쪽 팔다리보다 강하다.
2. 肝脾의 관계에서 脾氣가 上行하면 肝氣도 따라서 上升하고 胃氣가 下降하면 膽火도 따라서 下降한다고 하였고 『內經』의 厥陰不治 求之陽明調其中氣 使之和平, 『金匱』의 見肝之病 常先實脾의 이론에 의해 肝病의 치료에는 脾胃를 調理하는 것이 요점이라고 하였다.
3. 肝이 疏泄作用을 잃으면 腎의 閉藏기능도 잃게 되어 기운이 相衝하면 喘症이 생길 수 있고 간의 疏泄기능이 과도하면 白濁症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4. 氣化가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한의학의 중요한 특징임을 강조하였고 기화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는 肝臟이라고 하였다. 그는 肝主氣化는 첫째 元氣를 升發하여 대기를 형성하여 전신을 돌게 하고 둘째 氣機를 疏泄하고 心腎을 통하게 하며 先後天을 연결하여 전신의 기화를 지도하며 셋째 脾胃의 도움에 의해 肝主氣化가 실현된다고 하였다.
5. 肝血이 虛損하고 肝火가 상승하면 肝에 저장되어 있어야 할 魂이 肝血不足으로 저장되지 못하여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淸肝火, 生肝血, 降胃氣, 滋胃汁하여 肝胃를 조양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1.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189.
2. 劉越. 張錫純醫案(一). 北京: 學院出版社. 1999: 162.
3.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208.
4.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 中國: 人民衛生出版社. 1990: 27.
5.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181~182.
6. 張錫純. 醫學衷中參西錄(下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9: 29~30.
7. 劉越. 張錫純醫案(一). 北京: 學院出版社. 1999: 233.
8. 唐容川.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8.
9. 鄭洪新, 李敬林.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02.
10.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01~205.
11. 金亨泰. 張錫純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관한 硏究. 大田大學校大學院. 2002: 51~52.